문화재 안내판 이젠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청 내년 3월까지 2500여 안내판 개선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시대에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애불상 중의 하나로 미륵불로 추정된다. 지상 3.3m의 높이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불상의 15.6m, 폭이 8.48m가 되며, 연꽃무늬를 새긴 계단모양의 받침돌까지 갖추었다. 머리 위의 구멍은 동불암이라는 누각의 기둥을 세웠던 곳이다.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으로, 신체 높이가 약 15.7m, 무릎 너비는 약 8.5m이며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마애불의 양식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성 시기는 신라 말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새겼다는 전설도 있다.

보물 제1200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 내용이다. 앞선 것은 기존 안내판의 내용이며 후자는 새로 개선된 안내판이다.

개선된 안내판은 확연히 달라진 것이 보인다. '마애불' 이라는 전문용어 대신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 이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검단 선사와 같은 설화를 넣어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마애불을 조성했던 당시의 상상도를 삽화로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 전국 1,392건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534건 · 시도지정문화재 858건)에 설치된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시작한 안내판 개선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3,500여 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자체 · 시민자문단 의견 청취
쉬운 문안 · 지역문화사 반영해
개선 사례 50건 우선 공개도
2022년까지 3500개 정비 목표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을 위해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지역 고유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개선 방향으로 정했다.

이어 국문과 영문 안내문안 작성 지침서 배포, 시민자문단 운영, 감수 체계 구축, 상시 점검과 주기적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바꾼 사례 50여 건을 모아 12월 2일부터 국가문화유산포털 누리집(heritage.go.kr)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연말까지 총 3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례를 실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개될 문화재 안내판 중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안양 삼막사 사적비, 사적 제67호인 함안 성산산성, 등록문화재 제111호 태백 장성이중교도 있다.

삼막사 사적비의 경우 "이 비의 비갓은 팔작지붕형이고 지대석(地臺石)은 땅에 묻혀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등 설명이 어렵게 풀이됐다. 하지만 개선된 안내판은 "삼막사 창건과 그 이후 연혁을 기록한 비석이다. 사적비(事蹟碑)는 사찰이나 서원, 사당, 성곽 등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을 말하며, 기적비(紀蹟碑)라고도 한다" 등 사적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관람객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비석 구조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올해 추진된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례는 시민자문단 · 전문가 감수를 통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물인만큼 학교 교육이나 문화재에 흥미가 있는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에게 친숙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물 제1200호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 사진 위쪽이 개선 전, 사진 아래쪽이 개선 후이다. 설명은 쉬워졌고, 상상도를 넣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중론' 주요품 강독 중관학당 겨울캠프

12월 6~8일 지리산 실상사서

초겨울 용수의 대표 저서 〈중론〉의 주요품을 강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은 오는 12월 6~8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2019 겨울캠프' 를 개최한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겨울캠프에서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와 함께 〈중론〉의 '제25관열반품(觀涅槃品)' 을 중심으로 '제24관사제품(觀四諦品)' , '제2관거래품(觀去來品)' 을 다룰 예정이다.

강사로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참여한다. 신상환 대표는 인도 비스바 바라띠대학 인도-티베트학과에서 티베트학 석사 및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 캘커타 대학의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후 조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고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겨울캠프 정원은 30명이며 2박3일과 1박2일 일정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박3일 30만원, 1박2일 15만원이다. 중관학당 후원회원과 학인 스님은 할인된다.

중관학당은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을 함께 다룰 이번 강좌에서는 〈중론〉의 주요품을 통해 '공사상' 의 형성, 논리적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티베트 불교와 '공사상' 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회 성운학술상 공모

한국불교학회, 내년 2월 28일까지

염불신앙에 대한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제3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논문 주제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 등이다. 가피 사례는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기도신앙도 가능하다.

수상자로는 대상 1명(500만원), 우수상 1명(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이 각각 선정된다.

시상식은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춘계대회 발표 후 한국불교학회 학술지 〈한국불교학〉 기획논문으로 게재된다.

한편, 성운학술상은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의 발의와 재정지원에 따라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신성민 기자

성철 스님 소장 불서 면면 살피다

동국대 ABC사업단 · 백련암
11월 22일 공동 학술세미나
소장書 조사 완료 기념으로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인 성철 스님이 소장했던 불서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단장 정승석, 이하 ABC사업단)과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철 스님의 수행과 공부' 를 주제로 '백련암 소장 불서 조사 완료 기념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2017년 11월부터 백련암 소장 고문헌 조사를 시작했다. 백련암 고문헌은 성철 스님이 생전에 소장 · 연찬했던 것으로 대부분 1947년 김병룡 거사에게 증여받은 책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백련암 소장 문헌의 현황과 가치(서수정, 동국대)' 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증여 계약을 기록한 증여목록 1책과 장서목록 2책이 확인됐다. 또한 김병룡 거사가 증여한 책에서 여러 장서인(藏書印)이 발견됐다.



동국대 ABC사업단과 해인사 백련암은 11월 22일 백련암 소장 불서 조사 완료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굴된 〈증여계약서목〉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1948년 9월에 증여자 김병룡 거사와 수령자 성철 스님 그리고 입증인으로 김낙인(金洛仁)과 자운 스님의 참관 하에 체결되었다. 증여서목에는 총 25부로 분류한 1,773책이 기록돼 있다.

증여받은 불서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불교계에서 활약한 혜월거사 유성종(劉聖鍾), 인허 성유(印虛性維), 박선묵(朴銑默), 최취허(崔就墟), 권상로(權相老) 등의 장서인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중국 가흥대장경과 명 · 청대 간행 일반 불서들, 중국 각경처 불서 1200여 책도 확인됐다.

조사를 진행한 서수정 전임연구원은 "백련암 소장 문헌은 19세기 불서 간행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면서 "특히 중국 불서들이 어떻게 국내로 유입됐는지 중국과의 서적 교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인사 백련암 소장 한국본 불서의 서지적 분석(남희권) △퇴옹 성철의 불서 인용과 유필 노트(최원섭)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성철 대종사께서는 평생 선수행을 통해 실참을 강조하셨지만, 수행의 여가에 틈틈이 〈선림고경총서〉 37권을 출간해 수행자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되도록 하셨다"면서 "백련암 소장 문헌에 대한 학문적 연찬은 조계종과 한국불교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철 스님 학술세미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성철 스님의 원력과 위신력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주요 불교학술단체 첫 연합워크숍 연다

불교학연구회 등 12월 20일

불교학술단체 연합으로 학술단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학연구회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 한국불교학회, 한국선학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불교학술단체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요 학술단체들이 연합해 학술워크숍을 여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서 눈길을 끈다.

'한국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 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는 발표들이 이뤄진다.

주요 발표로는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 발전방안(이병욱, 고려대) △불교학술지 편집 동일안 모색(차상엽, 금강대) △불교 국제학술지 정보 및 투고방법(조은수, 서울대) 등이다. 토론자로는 김희(울산대), 강형철(동국대), 고승학(금강대)가 나서며 발표 이후에는 권기현 · 김방룡 · 김성철 · 안성두 · 임승택 등이 참여한 총평 자리도 마련된다. 신성민 기자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